

간호 교육과 가족계획 세미나

때 : 1970년 7월 22일~7월 25일
장소 : 아카데미 하우스

목적 :

- 인구 및 가족계획 분야에 있어서의 간호원의 역할을 파악하고 기여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인구 및 가족계획 분야에 있어서의 간호원의 역할을 담당할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 가족계획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교육 및 연구사업을 장려하고자 한다.
- 가족계획 사업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간호교육과정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 교육과 가족계획 전국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서.

연세 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전 산 초

일반적으로 Seminar란 일종의 성인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첫째로 세미나 혹은 그 교육환경이 아주 좋아야 한다는 것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된다. 둘째로는 이것이 성인들 즉, 각 분야에 경험을 가진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충분히 교환되고 발표되어야 한다는 것도 그조건 중에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로 성인교육이란 자기 그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가적으로나 국민 또는 각각 그 사업체에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전체적 의의를 지니고 있어, 이와같은 Program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도 각자의 발전과 또한 맡은 바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이와같은 Program에 참석하는 것은 의무요 책임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비추어 보아 나는 이번 모임이 첫째조건 즉 환경, 식사, 진행의 뒷바침이 좋아서 피곤함이나 불편이 없어 요원들이 충분히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었다고 보며 또한 열열하고 진지한 요원의 발표나 의견교환은 지루한 들을 몰라 차 마시는 시간까지 연장되는것을 볼 수 있었으며, 참가성적은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초청된 전원이 참석했다. 이런것으로 본다면 모든 조건은 충분히 갖추어진 세미나라고 보아 훌륭하였다.

그 다음 그 내용에 있어서 본다면,

옛말에 “一石二鳥”란 말이 있는데, 나는 이번 모임을 一石三鳥라고 보고 싶다.

그것은,

1. 주목적인 간호교육과 관련된 가족계획의 이상적인 방안이 모색되었고 앞으로 이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2. 간호교육이나 교육자 자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았으며
3. 우리를 다른 분야의 사람에게 보여줄 기회가 된 것과 동시에 우리와 관련된 다른 학문의 이야기들 들을수 있었던 것만큼 유익을 가져왔다고 보는 까닭이다. (18page에 계속)